

“이 풍진 세상 ‘꿈의 정원’서 쉬어 가세요”

광주시립미술관 중견작가초대전 ‘진원장: 꿈의 정원’

오늘 개막식...7월 16일까지
초기 인물·풍경 구상회화부터
최근 이상향 표현한 추상 작품까지
100호 이상 대작 위주 47점 전시



진원장 조선대 교수가 ‘침묵의 정원’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꿈의 여정’

“평생 자연을 존경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관람객들도 작품을 보며 자연의 따뜻한 정과 여유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색채 연구술사’로 불리는 진원장(65) 조선대 교수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남도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고 있다.
진 교수가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예술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를 연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중견작가 초대전 ‘진원장: 꿈의 정원’을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 13일 오후 5시 본관 6 전시실.



‘연습실’

올해부터 본관 3층을 지역중견작가와 순수소장품전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한 미술관은 서양화 화가로는 처음으로 진 교수를 초대했다.
12일 작품설명회에서 진 교수는 “시립미술관은 공간이 넓고 좋다보니 100호 이상 대작 위주로 준비하느라 입안이 다 헐 지경이다”고 소개했다.
출품작은 총 47점으로 이중 30여점은 지난해부터 그린 신작이다. 진 교수와 함께 들러본 전시장은 온통 화사한 기운이었다.
작품배치는 작업연대순으로 했다. 기초 실력을 쌓기 시작한 1978년작 ‘누드’부터 2000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뒤 그린 ‘아프리카의 꿈’, 원숙미가 엿보이는 ‘꿈의 여정’ 등이다.
작품 ‘누드’에 대해 설명하던 진 교수는 “대학 학부생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소묘를 중시하며 인물·풍경 작품을 많이 그렸다”고 회상했다.
해남 출신 진 교수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본격적인 미술교육을 받았고 조선대 미술대에 입학하며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진 교수는 특히 스승이었던 임직순 교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감정과 열정을 강조한 임 교수의 뜻에 따라 서정적 색채를 사용하면서도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개발해 독창적인 화풍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84년 조선대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부터는 본인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1984·1986년 두차례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1986년 수상작 ‘연습실’(1986)은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이 무용 연습하는 장면을 그렸다. 투명한 빛과 명암,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젊음

과 여성 아름다움을 서정적 색채로 담았다.
출품작을 쭉 살펴다 보면 2000년을 계기로 추상적 조형미가 작품에 드러난다. 이 시기 진 교수는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고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작품관에 변화를 준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각성이었다.
귀국 후 그린 ‘꿈’ 시리즈는 이전 작품에 비해 색채가 한단계 가볍고 밝아졌다. “뿌리는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진 교수는 원색과 중간색을 자유로이 사용하며 스승들이 선보였던 인상파적 남도 풍경을 비구상적으로 작품에 담는다.
작업에 가장 공들인 ‘꿈의 여정’은 100호 크기 5점을 이어붙인 작품이다. 자유를 상징하는 새, 꽃잎, 빅토리아 폭포, 리우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자전거 타는 여인 등 동창적인 조형미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장 마지막에 걸린 작품은 ‘소나기’이다. 숲에 서있는 여인이 비를 맞고 있는 장면으로, 배경부터 나뭇잎, 비까지 녹색 계열을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전한다. 진 교수가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는 마음의 휴식이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진 교수 작업모습과 인터뷰를 담은 15분 분량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진 교수는 “밝은 작품을 그리며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행복만 가득한 ‘꿈의 정원’을 만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지수 개인전

14~21일
김호갤러리



▶ ‘Flowers in chaos’

무수한 인간형상을 그리며 ‘관계’를 이야기하는 나지수 작가가 14일부터 2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김호갤러리에서 개인전 ‘causality/인과관계’를 연다.
동양사상 ‘연기설’(緣起說)에서 영감을 얻은 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묵으로 현대사회의 이슈와 복잡한 관계성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Flowers in chaos’는 사람 수백명이 서로 다리를 붙잡고서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분홍, 초록 등 밝은색 바탕에 흑백으로 그린 나체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뒷모습만 보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있거나 옹크

리고 있다.
입지도, 가리지도 않은 존재들을 통해 ‘관계’와 ‘연결’을 이야기하며 현대사회를 풍자했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떠도는 존재로 빗냈다.
또한 드로잉 작품도 함께 배치해 작업 형태와 과정을 보여준다.
나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2013 광주시 미술대전 특선, 2014 한국화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 무작위 로터스갤러리 청년작가 공모에 선정돼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茶, 한잔의 즐거움’전

19일~5월 17일 대극장 갤러리



◀ 구민영 작 ‘기억속의 자연’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김철승)은 오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극장 갤러리에서 차(茶) 도구전 ‘茶, 한잔의 즐거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지친 육체와 정신의 치유를 위해 즐기는 여가생활 중 하나인 차(茶)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차 도구를 선보인다.
전시에는 구민영·김기찬·김용섭·김진현·김철화·남태운·라필주·민승기·신미영·염종규·위승연·이상욱·이치

한·정재진 등 광주 전담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도예작가 14명이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다관, 찻잔, 차호, 당관, 속우 등 우리의 전통다구(茶具)부터 머그, 티 워머 등 현대적인 생활자기까지 선보이며, 판매도 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약 46 M
- ▶ 개관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남연선 18)

아프리카 소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2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7. 4. 19(수) ~ 5. 30(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7년 5월 15일(월) ~ 5월 17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19일(수) ~ 5월 30일(화)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7년 4월 17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